

2012 삼국지, 최종승자 결정할 세대변수 점검

정한울
동아시아연구원

2012년 11월



2012 삼국지, 최종승자 결정할 세대변수 점검

정한울_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2012. 11. 2

본 보고서는 <주간동아> 860호 (2012.10.29 p18~19)
[커버스토리 | 40대의 생각 02] "나이? 공약? 그것이 문제로다"로 발표된 기사를 수정·보완한 것임

2002년 선거는 세대균열이 본격적으로 등장했던 선거다. 2030세대는 노무현 후보를, 5060세대는 이회창 후보를, 세대균형추 40대는 노무현, 이회창 후보가 양분하였다([그림1]). 2030세대는 상대적으로 낮은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전체유권자의 48.9%를 차지하는 압도적 규모를 앞세워 노무현 후보를 당선시켰다. 2007년에는 2030세대에서 조차 이명박 후보는 정동영 후보를 누르고 당선됨으로써 세대투표의 영향력에 대한 회의를 갖게 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 세대투표는 더 화려하게 부활했다.

1. 세대대결 양상의 변화

예비선거기 세대투표 경향의 강화

각 정당후보가 확정되고, 9월 하순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의 공식후보로 선출되고, 안철수 후보의 공식출마가 있기 전인 선거준비기의 조사결과를 보면 세대투표는 새로운 양상으로 복원되고 있다. 지난 2007년 이명박 후보 지지로 이탈했던 2030세대가 정부여당에 비판적 태도를 보이며 다시 반세누리, 야당지지성향으로 복귀한 결과다. 결국 40대가 캐스팅 보트를 준 상황이다. 이들의 분위기에 따라 지지율의 변동이 발생하는 형국이다. 이 시기 안철수 후보 박근혜 후보와 야당 후보들간 지지율 격차가 적고 상황에 따라 변동도 큰 스윙보팅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했다. 야당 지지 다자대결 기준으로 보면 5060세대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2030세대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압도적 우위를 보여줘 왔다. 상대적으로 야당 지지성향이 강함 20대에서 40대까지의 유권자들 사이에서 문재인 후보는 뚜렷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

후보 선정 이후 3자 세력균형 : 2030 安, 40대 文, 5060 朴

그러나 9월 후보선정과 추석 이후 본격적인 대선경쟁이 시작된 이후 상당한 변화가 감지된다. 이 시기 가장 큰 변화는 문재인 후보의 강세가 이어지면서 세 후보의 세력균형 상태가 나뉜다. 동일응답자 패널 15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EAI·SBS·중앙일보·한국리서치 패널조사 결과를 보면 박근혜 후보 대 안철수 후보가 44.7% 대 50.6%, 박근혜 후보 대 문재인 후보가 47.4% 대 48.8%로 사정권 하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다. 삼자 대결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앞서고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인 후보가 뒤를 쫓는 형국이다. 박근혜 후보는 단독으로 과반을 넘지 못하고, 안철수 문재인 후보는 단독으로는 박근혜 후보에 뒤지지만, 양자를 합하면 박근혜 후보 지지율을 뛰어넘는다.

[그림1]의 세대별 다자대결 지지율 변화와 [그림2]의 세대별 양자대결 지지율 변화를 종합해보면, 2030세대에서는 안철수 후보 지지가 높지만 문재인 후보의 경우도 4.11 총선 이후 꾸준히 지지율 상승을 보여준 반면, 40대의 경우는 9월 민주당 후보선출 및 안철수 후보 공식출마 선언 이후 급격하게 문재인 후보 지지로 돌아섰다. 안철수 후보의 공식출마 선언 이후 한 때 지지율이 급증하기도 했지만, 역으로 정치적 리더십과 국정능력에 대한 불안감이 현실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문재인 후보 지지로 돌아선 결과였다. 이것이 현재의 3자 세력균형을 만들어준 요인이다.

2. 세대투표를 둘러싼 논점

세대별 투표율이 핵심인가?

많은 전문가들이나 언론이 선거를 좌우할 세대변수로서 세대별 투표율을 꼽는 경우가 많다. 물론 결과론적으로 보면 세대별 투표선호의 간극이 크기 때문에 세대별 투표율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세대별 투표율은 개인이 좌우할 수 있는 개개인의 투표행위의 결과물이라는 점이다. 투표 행위 자체는 투표 독려나 제도적 정비로 큰 효과를 보기 힘들다. 심지어 SNS에서의 인증샷 등이 투표참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지난 4.11 총선에서 SNS 투표참여 운동과 유명인사들의 각종 이벤트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은 54.3%에 그쳤다. 투표율은 종속변수다. 유권자들의 투표선택을 좌우하는 직접적인 변수는 아니다. 투표참여를 독려하고 투표시간 연장 등 투표참여를 촉진시키는 노력이야 필요하고, 선거전략상 필요하겠지만 정확한 실태파악에 기초하지 않은 제도개선안은 실질적인 투표율 제고에 큰 영향을 주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EAI 오피니언리뷰 2012-07호 참조).

세대분포의 변화와 세대별 지지율이 핵심변수

세대별 투표율 보다는 세대별 지지율에 주목해야 한다. 즉 선거운동은 유권자들의 요구와 기대를 실현할 좋은 정책을 내놓고 후보가 그 실행공약 및 의지를 보여주면 유권자들이 반응한다. 쉽게 말해 투표를 하자고 강변해서 투표율을 높이지는 못하지만, 유권자들의 마음에 드는 공약을 내놓고,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의지를 밝히며 득표 경쟁을 벌이면 유권자는 반응한다. 세대가 변수면 세대별 지지율을 변화시키기 위한 세대전략과 공약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후보와 정당, 각 선거캠프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수인 셈이다.

세대별 지지율이 가져올 효과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필자가 지난 7월 한 보고서에서 처음 밝힌 바 있는 2002년 16대 대선과 비교하여 이번 18대 대선의 경우 5060세대의 절대적 규모가 증가한 반면, 2030세대의 규모는 감소했다는 것이다. 5060세대의 상대적으로 높은 투표율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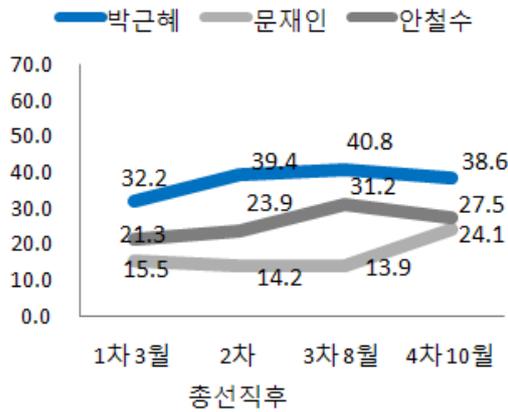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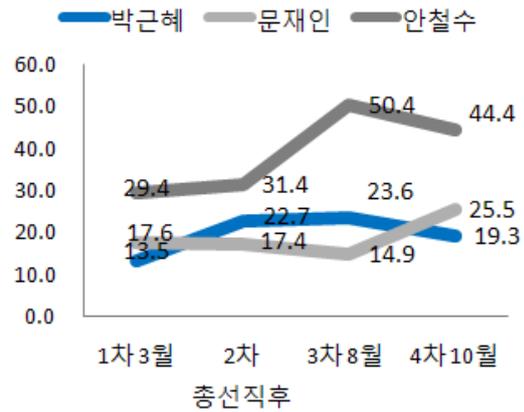
고려하면 5060세대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세대투표 구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세력균형이 유지되는 것은 40대가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이래 친야당 성향을 보여주며 세력의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이다.

[그림1] 4.11 총선-10월 세대별 대선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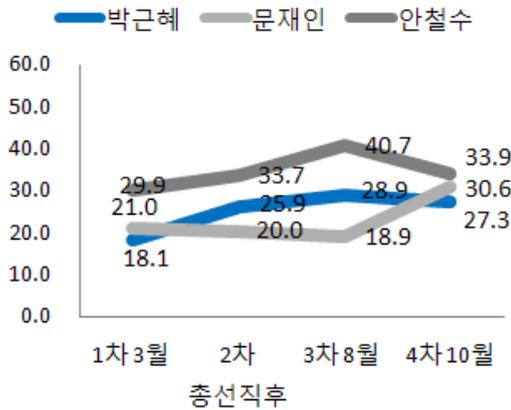
[전체 응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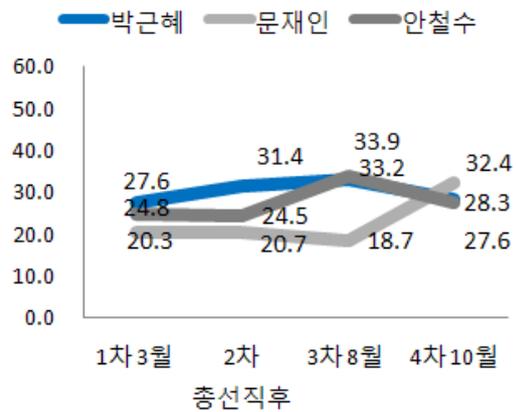
[2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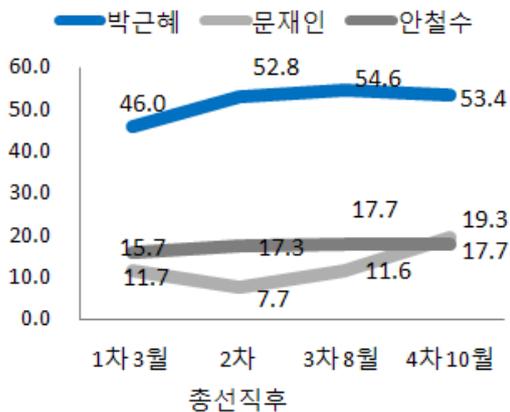
[3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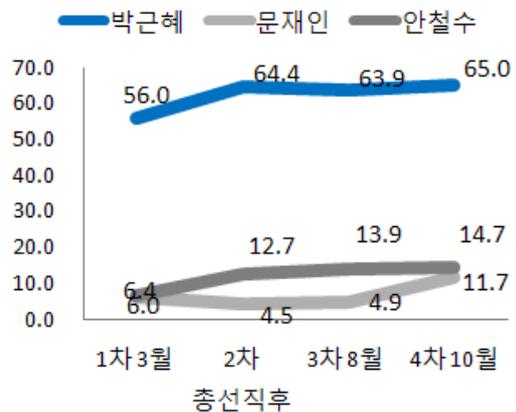
[40대]



[5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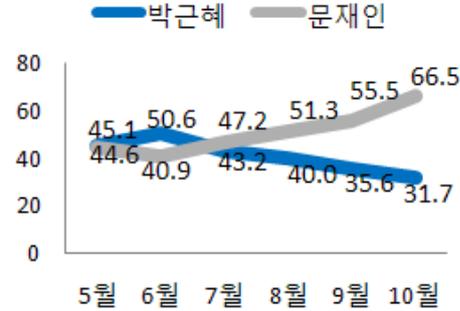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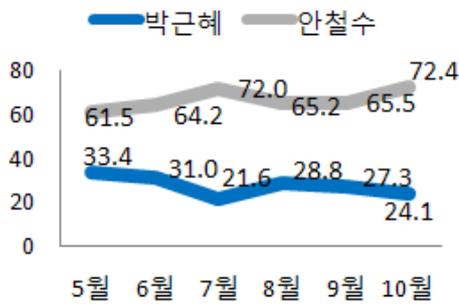
[6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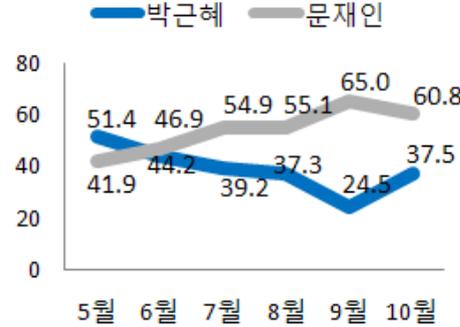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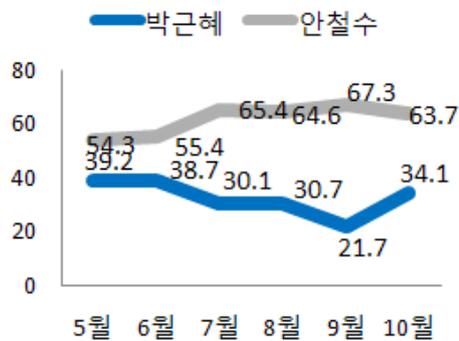


[그림2] 세대별 양자대결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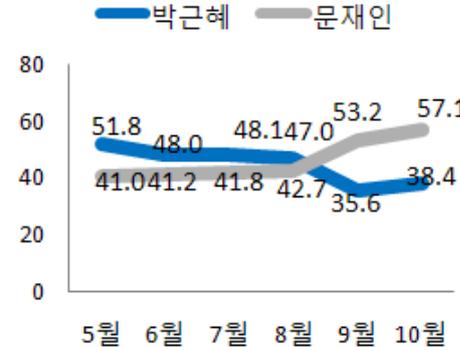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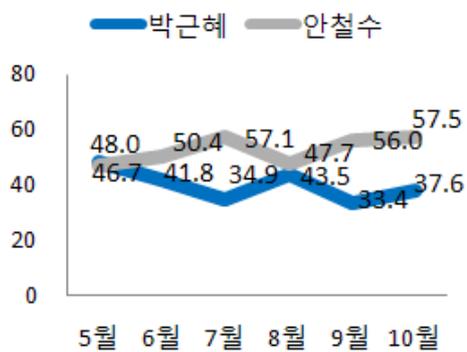
(1) 2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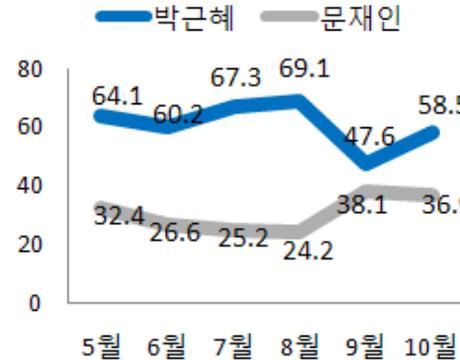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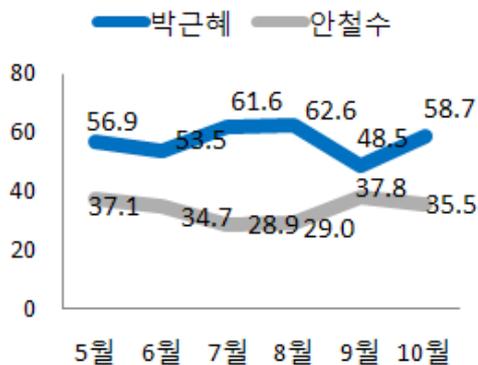
(2) 30대



(3) 4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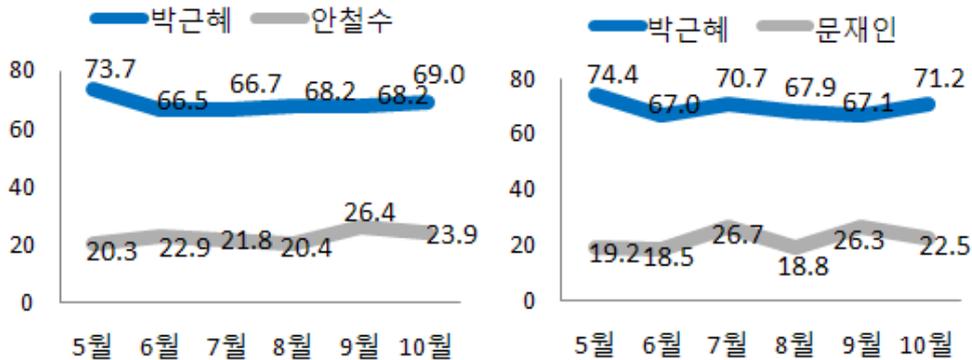


(4) 50대





(5) 60대 이상



2. 남은 변수

박근혜 후보의 집토끼론 : 보수결집론은 40대 이탈 가능성 커

박근혜 후보는 지난 8-9월 5.16 과거사 문제와 측근비리 문제로 적지 않은 지지층 이탈이 있었다. 이에 대한 과감한 사과와 정면돌파를 통해 이후 이전의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정수장학회 문제에 대한 해명과 최필립 이사장 사퇴권고가 난항에 부딪히고 있으며 선진통일당과의 합당, NLL 논란을 계기로 강화되고 있는 일련의 네가티브 행보는 보수결집론을 연상시킨다. 이는 지금까지 박근혜 후보가 강조해온 보수의 개혁 및 중도화 전략에 위배된다. 보수개혁 노선의 기초하에서 지지층 결집을 위한 보완 전략이라면 수궁이 가지만 지난 8-9월 과거사 문제, 측근비리 문제가 집중되면서 나타난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 하락이 주로 40대에서 나타났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패널조사의 세대별 지지율을 기준으로 투표율이 높았던 16대 대선 당시의 세대별 투표율을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간단히 돌려보면 결과처럼 19.9%이상(박 37.6% 대 안 57.5%) 격차가 벌어지면 54만여표 안철수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온다(표 2-1). 반면 40대에서 박근혜 후보 지지율이 5%오르고,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5% 내려 9.9% 차로 좁혀지면 5060세대의 높은 투표율을 바탕으로 12만 4천표 박후보가 승리하는 결과를 볼 수 있다(표 2-2). 40대의 반야당성향을 완화하여 지지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강조해온 중도화 노선과 개혁의지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선거캠페인 과정의 포지션 이동은 득보다 실이 클 것이다.

안철수, 문재인 후보의 2030세대 편향은 극복될 것인가?

반대로 야권은 5060세대 대책이 시급하다. 아무리 2030세대에 의존하여 물표를 받는다고 해도 10년 전에 비해 늘어난 5060세대의 절대적 규모와 상대적으로 높은 투표율을 고려하면 현재와 같이 50대에서 30%대의 지지율, 60대에서 20%대의 지지율에 머물러서는 단일화를 해도 승리를 자신할 수 없다. 노무현 후보의 승리 당시 선거인단 과반에 달하는 2030세대의 압도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고 낮은 투표율로 간신히 승리한 바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노무현 후보는 당시 50대에서 40.1%의 지지율, 60대 이상에서도 34.9%의 지지율을 획득하여 5060세대에서의 표차를 줄였다는 점이다. [그림3]처럼 60대의 경우 지지율 변동이 거의 없지만 50대의 경우 상당한 변동을 보여주었다. 야당이 강조하는 99%의 서민은 한국사회의 저소득층이며 이 저소득층은 대다수 고령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5060세대에서 지지율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5060세대 정책의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정년 65세 단계적 보완 등의 정책은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투표임박하기 전까지 특별한 대안이 없는 세대별 투표율에 주목할 것인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공약개발과 소통으로 세대별 지지율을 변화시킬 것인가? 결국 세대전쟁의 결과는 각 후보의 전략적 결단에 달려있는 듯하다.

[표1] 세대별 투표균열 : 19대 총선과 16-17대 대선

	18대 대선 (2012) EAI-SBS-중앙일보-한국리서치 패널조사(10.11-14)		17대 대선 (2007) EAI-SBS-중앙일보-한국리서치 패널조사		16대 대선 (2002) MBC-KRC 출구조사	
	박근혜	안철수 (문재인)	이명박	정동영	이회창	노무현
결과	44.7 (47.4)	50.6 (48.8)	52.7 (48.7)	23.6 (26.1)	46.2 (46.6)	48.5 (48.9)
20대	24.1 (31.7)	72.4 (66.5)	45.8	21.3	34.9	59.0
30대	34.1 (37.5)	63.7 (60.8)	41.4	28.3	34.2	59.3
40대	37.6 (38.4)	57.5 (57.1)	52.2	22.3	47.9	48.1
50대	58.7 (58.5)	35.5 (36.9)	57.6	26.0	57.9	40.1
60대	69.0 (71.2)	23.9 (22.5)	70.3	19.6	63.5	34.9

주: 괄호안의 수치는 선관위 발표 실제 득표율 (17대 대선 문국현, 이회창 후보 등 제3후보 지지율은 표기 안함)

[표2] 시뮬레이션1: 16대 대선 세대별 투표율* 패널조사 지지율 적용시 <박 : 안 >

(1) 40대에서 지지율 격차가 19.9%p인 경우

시뮬레이션 (16대 모델)	유권자수	세대별 투표율	박근혜 지지율	안철수 지지율	박근혜 득표	안철수 득표	(박-안) 표차
20대	7,313,055	0.565	0.241	0.724	995,782	2,991,478	-1,995,696
30대	8,197,051	0.674	0.341	0.637	1,883,961	3,519,306	-1,635,344
40대	8,799,775	0.763	0.376	0.575	2,524,550	3,860,681	-1,336,132
50대	7,594,327	0.837	0.587	0.355	3,731,237	2,256,540	1,474,697
60대	8,317,596	0.787	0.690	0.239	4,516,704	1,564,482	2,952,223
전체 (환산 비율)	40,181,623	72.8%	46.6%	48.4%	13,652,234	14,192,487	-540,253 (안승)

자료: EAI-SBS-중앙일보-한국리서치패널조사(10.11-14)





(2) 40대에서 지지율 격차가 9.9%p인 경우

시뮬레이션 (16대 모델)	유권자수	세대별 투표율	박근혜 지지율	안철수 지지율	박근혜 득표	안철수 득표	(박-안) 표차
20대	7,313,055	0.565	0.241	0.724	995,782	2,991,478	-1,995,696
30대	8,197,051	0.674	0.341	0.637	1,883,961	3,519,306	-1,635,344
40대	8,799,775	0.763	0.426	0.525	2,860,261	3,524,970	-671,423
50대	7,594,327	0.837	0.587	0.355	3,731,237	2,256,540	1,474,697
60대	8,317,596	0.787	0.69	0.239	4,516,704	1,564,482	2,952,223
전체 (환산 비율)	40,181,623	72.8%	47.8%	47.3%	13,987,946	13,856,776	124,456 (차승)

자료: EAI·SBS·중앙일보·한국리서치패널조사(10.11-14)

[표4] 세대별 투표균열 : 19대 총선과 16-17대 대선

	17대 대선 (2007) EAI·SBS·중앙일보·한국리서치 패널조사		16대 대선 (2002) MBC·KRC 출구조사	
	이명박	정동영	이회창	노무현
결과	52.7 (48.7)	23.6 (26.1)	46.2 (46.6)	48.5 (48.9)
20대	45.8	21.3	34.9	59.0
30대	41.4	28.3	34.2	59.3
40대	52.2	22.3	47.9	48.1
50대	57.6	26.0	57.9	40.1
60대	70.3	19.6	63.5	34.9

주: 괄호안의 수치는 선관위 발표 실제 득표율
(17대 대선의 경우 문국현, 이회창 후보 등 제3후보 지지율은 표기 안함)

I 이 보고서는 보고서에 실린 견해는 저자 개인의 것으로 EAI나 EAI 여론분석센터 전체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에 실린 내용의 일부나 전체에 대한 무단 사용을 금하며, 인용 시에는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I 내용문의 EAI 정한을 여론분석센터 부소장(02-2277-1683 내선102, 010-4280-3230, hwieong@eai.or.kr)

EAI 정원철 여론분석센터 선임연구원(02-2277-1683 내선105, 017-279-4536, cwc@eai.or.kr)

I 조사문의 한국리서치 김춘석 수석부장 (02-3014-0082/016-9525-8416/cskim@hrc.co.kr)





2012 EAI 여론브리핑 시리즈

- 110호 "2012 총선·대선 1차 패널조사의 주요 결과" 정원철. (2012. 4. 9)
- 111호 "여야 경합국면의 원인과 전망" 정한울. (2012. 4. 9)
- 112호 "유권자 패널의 4.11 총선평가" 정원철. (2012. 4. 23)
- 113호 "4.11 총선과 대선 정국" 이곤수. (2012. 4. 23)
- 114호 "세계인의 분배 공정성과 자유시장 자본주의 인식" 정원철. (2012. 4. 26)
- 115호 "세계인의 눈에 비친 17개 파워국가의 국제적 평판" 정원철. (2012. 5. 11)
- 116호 "2012 파워정치인 신뢰도·영향력 조사로 본 권력지도의 변화와 대선 정국 전망" 정한울. (2012. 5. 31)
- 117호 "여론으로 본 경선국면 전환기의 대선구도 평가" 정한울. (2012. 7. 1)
- 118호 "안철수 현상의 진화? 안철수 바람의 연속성과 차별성" 정한울. (2012. 7. 29)
- 119호 "박근혜 현상 vs. 안철수 현상의 충돌: 지지요인 및 후보 이미지 포지셔닝 맵" 정한울. (2012. 9. 2)
- 120호 "새누리당 경선 직후 조사의 주요결과" 정원철·이곤수 2012-09-07
- 121호 "안 출마 이후 선거구도 변화: 당선가능성은 안철수, 단일후보는 안·문 팽팽" 정한울 (2012. 9. 23)
- 122호 "2012 대선2차 패널조사 유권자 지지행태 변동의 크기와 원인" 이곤수·정원철 (2012. 10. 21)
- 123호 "2012 대선2차 패널조사의 주요결과" 정원철(2012. 10. 25)
- 124호 "세 후보 약점이 공존하는 균형 : 후보등록 한달 전 대선여론" 정한울 (2012. 10. 28)

2012년 EAI 오피니언리뷰 시리즈

- 2012-01호. "2012 어젠다 : 어젠다를 보면 2012년이 보인다" 정한울 (2012. 1. 5)
- 2012-02호. "19대 총선 결과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 장승진 (2012. 4. 25)
- 2012-03호. "부동층의 표심 이동과 이슈의 영향력 분석" 박원호 (2012. 4. 25)
- 2012-04호. "여론으로 본 4.11 총선평가와 대선 쟁점" 정한울 (2012. 4. 25)
- 2012-05호. "세대 투표율 분석을 통해 본 2012 대선 예측 : 10년새 570만표 불어난 5060세대가 대선 좌우한다" 정한울 (2012. 7. 25)
- 2012-06호. "한 줄의 카피전쟁, 대선 슬로건 1라운드 경쟁 결과: 수도권 3040세대 무당파층 FGD 결과를 중심으로" 정한울 (2012. 8. 3)
- 2012-07호. "출사표를 통해 본 대선유력주자 인지지도(cognitive map)" 정한울. (2012. 8. 12)
- 2012-08호. "지역주의 투표행태의 변화를 통해 본 2012 대선 예측: 지역투표 약화될 것인가? 교차압력(cross-pressures)이 변수" 정한울. (2012. 8. 31)
- 2012-09호. "2012 대선 불확실성 특성 분석 : 적대적 이분법 구도의 약화와 여당 전략 변화" 정한울 (2012. 9. 21)
- 2012-10호. "제18대 대선에서 야권 후보단일화의 전망과 한계" 장승진. (2012. 10. 21)
- 2012-11호. "수도권 40대 무당파의 대선경쟁 한 달 평가: 기대와 실망의 공존" (FGD결과 분석) (2012. 10. 29)
- 2012-12호. "2012 삼국지 최종 승자 결정할 세대변수 점검" 정한울. (2012. 10. 29)

2011년 EAI 여론분석 단행본 시리즈

- 여론분석6. 이내영·임성학(공편) 《변화하는 한국유권자4: 패널조사를 통해 본 2010 지방선거》 서울: EAI
- 여론분석7. 강원택·이내영(공편) 《한국인 우리는 누구인가? 여론조사를 통해 본 한국인의 정체성》 서울: EAI



